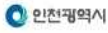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2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위생정책과	담당 자	• 가공식품팀장 김정희 ☎440-2796 • 담당자 정소현 ☎440-2798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식품업소 위생관리...규제 보다는 행정지도
- 신규 및 취약업소 40개소 선정, 1:1 멘토링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제조 현장에 1:1일 방문하여 ‘찾아가는 안심 멘토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사업대상은 1년 이내의 신규 등록업소 또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참여를 희망하거나 군·구에서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4월부터 12월까지 업체별로 현장 방문하여 멘토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상태 진단, 최신 개정된 식품위생 관계법령 안내, 영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산·작업 기록 및 원료수불 서류 작성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생활방역 이행사항 당부, 기타 애로사항 의견청취 등 차별화된 소통·공감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총 1,074개소이며, 이중 468개소가 150㎡이하의 소규모이거나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전체 업소 수 대비 44%에 달한다. 현재 법정 의무교육인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영업주 정기 위생교육으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번 멘토링 사업은 자율 위생관리 능력함양 및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12월에는 안심 멘토링 사업 추진성과를 자체평가하고 분석하여 군·구 및 해당 업소에 환류 할 계획이며, 동 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행정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최창남 인천시 위생정책과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식품안전과 시민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규제 보다는 찾아가는 1:1 안심멘토링 행정지도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나가겠다” 고 말했다.

붙임 관련사진

<2020년 찾아가는 안심 멘토링>

